

「오카야마시장 메일메거진 (123)」 2019년 11월 22일호

**【국제 우호 교류도시 불가리아 공화국 · 플로브디프시 방문】**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오카야마시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불가리아 공화국의 플로브디프시를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개최 중인 이벤트 「2019년 유럽 문화 수도」에 맞추어 초대된 것으로 저는 총 34명으로 구성된 오카야마 시민 문화 교류단의 단장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플로브디프시 디미토로후 시장님은 취임한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외 방문단이었던 것도 있어 「이 방문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문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자기 집에 있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계세요」라는 인사를 받았고 또한, 시 정부 관계자분들도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무척 감동했습니다.

유럽 문화 수도 이벤트에서의 샤쿠하치, 고토, 츠즈미 연주 (일본 악기 연주)는 많은 분으로부터 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후유노 우타(겨울 노래)」로 알려진 불가리아 동요를 연주했을 때는 너무 좋아해주셨습니다.

또, 오카야마를 대표하는 춤의 하나인 「우라자 춤」을 선보였을 때, 마지막 부분엔 플로브디프 시민분들과 손을 잡고 전원이 하나가 되어 우라자 춤을 추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언어의 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교류를 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플로브디프시 다음으로 방문한 수도 소피아시에서는 동경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 대회와 사전 캠프 실시 협정을 하기 위해 클라레프 청년 · 스포츠 대신이나, 이미 오카야마시에서의 캠프 실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베드민턴, 여자레슬링을 비롯한 각종 경기단체의 관계자를 방문했습니다. 대신께 지금까지 오카야마시의 불가리아 선수단의 서포트에 대한 감사의 기념품을 받았고, 육상 경기나 패럴림픽 등의 각 경기 단체에서는 사전 캠프 실시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시의 우호 교류가 더욱 진전됨과 동시에 내년 여름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 대회전에는 더욱 많은 불가리아 선수가 오카야마시에서 사전 캠프를 실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